

옥중서신 2 회 (2015/4/13)

당시의 대 도시 빌립보

빌립보는 유명한 로마의 군사및 상업용 도로망 '비아 에그나티아'(Egnatian Way/에그나티아는 라틴어로 길)의 주변 비옥한 평원 위에 건설된 동부 마게도냐의 도시이다. 이곳은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망의 동쪽 끝에 위치했지만, 서쪽으로 제국의 중심인 이탈리아로 가는 아드리아해 항구 두라키움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이 지역 교통의 요지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곳이었다.

마케도니아 지방의 주도 데살로니카 다음의 큰 도시로 동방의 관문인 곳이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의 빌립보는 주전 42년 빌립보 전투 승리를 계기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 아구스도에 의해 로마의 식민지로 승격된 이후 황제가 파견한 집정관이 직접 통치하는 일종의 황제 직할도시였다. 로마제국의 정식 식민지로서 빌립보 시민들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이 되는 특혜를 누렸으며, 따라서 이들 중 대부분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로마 시민이 누리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자동적으로 누리고 있었다.

상업, 공업과 함께 농업도 많이 하는 곳이라서 다산의 여신 다이아나가 많이 예배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 아데미. 아스다롯

빌립보 지역의 전도시작 동기

행 16:9-10 바울은 대도시 전도에 전념하였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¹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교회의 시작

복음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

빌립보는 유럽 기독교의 출생지로서 유럽에서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진 곳이다.

이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을 전도한후 귀신들려 점치는 여인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옥사장과 그의 집의 식구가 회개하여 마침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다.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행 16 장을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빌립보교회의 봉사와 바울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사랑함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을 때에 몇번 도운 일이 있었고(빌 4:16), 로마 감옥 투옥 중에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돈을 보내며 바울을 돕게 했다(빌 4:18).

편지가 기록된 동기

편지는 돕던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다가 회복되어 빌립보에 돌아가기를 원했으므로 그를 돌려보내며 이 편지를 썼다. 바울은 그 편지를 통하여 지금까지 도와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열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다.

기록장소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다수의 견해는 로마이며, AD 61-2 년경 쓴 것이다.

신앙 생활 하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올꺼야 생각하면 된다.

빌립보서의 내용 요약

주변 여건과 상관없는 마음의 평강

| | | | | |
|----|-----------------------|----------------------|----------------------|----------------------|
| 초점 | 하나님 뜻안에서 기뻐하라 | | 평안 안에서 쉬어라 | |
| 구분 | 그리스도의 생명 | 그리스도의 마음 | 그리스도의 기쁨 | 그리스도의 평안 |
| 본문 | 빌 1장 | 빌 2장 | 빌 3장 | 빌 4장 |
| 주제 | 우리의 표본인 그리스도 | | 우리의 확신인 그리스도 | |
| | 기뻐하라 | | | |
| 장소 | 로마 감옥 | | | |
| 시간 | A.D 61년 | | | |

빌립보서 본문 연구

1) 빌 1:1-2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²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교회의 체계를 잡았을 것이다.

위의 본문을 읽고 그 당시의 교회를 상상해 보라. 그 교회에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다함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자. 빌립보교회는 AD50년 제 2차 선교여행 중에서 세워졌고 약 십년이 지난 지금 편지를 받고 있음을 참고하여 생각을 해보자. 빌립보 교회에게 평강을 말할때 그 당시 그곳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하나님(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소유한다면 어떤 상태이겠는가?

행 27:22-25

감독이 혹시 간수이지 않았을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²³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²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²⁵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바울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평강을 누렸다.

2) 빌 1:3-5

모든게 다 무너져도 난 예수님 믿는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⁵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서를 공부하는 목적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어린 탄원을 드리게 하는 사람들인가 생각을 해보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만드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기술하고 있는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에 어떻게 참여를 할수 있는가? 당시의 바울의 기도가운데 무엇을 간구하였겠는가? 간구할때에 어떤 자세로 간구를 하여야하는지 앞의 본문을 통하여 답을 해보자.

기억할 점:

평강 - 이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람 - 그 사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한다.